



가 정 통 신 문

교무실 : 730-5500

행정실 : 730-5630

제 2021 - 45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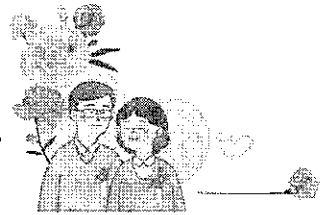
통지대상 :

1,2,3학년 학생 및
학부모

제목 : 2021년 「어버이 날」 계기 교육 자료 안내

1. 어버이 날(매년 5월 8일) 법정 기념일 :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의 전통적 미덕을 기리는 날

2. 내용 :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로 퇴색되어 가는 어른 봉양과 경로사상을 확산하고 국민정신계발의 계기로 삼아 우리 실정에 맞는 복지사회건설에 기여하도록 하는 범국민적 기념일이다. 1956년부터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지정하여 경로효친의 행사를 하여오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날'이 거론되어 1973년에 제정, 공포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어버이날'로 변경, 지정하였다. 이 날에는 각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와 조부모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감사의 뜻으로 선물을 하거나 효도관광에 모시기도 하며, 기념식장에서는 전국의 시·군·구에서 효자·효부로 선발된 사람에게 '효자·효부상'과 상금을 수여하고, 이들에게 산업시찰의 특전이 주어지기도 한다.



3. 유래 : 영국과 그리스에서는 오래전부터 사순절 기간 중 '어머니의 일요일(Mothering Sunday)'이라 불리는 날을 정해 어머니들에게 존경과 애정을 표현하는 풍습이 있었다. 20세기 사회운동가인 '줄리아 워드 하우'는 어머니의 사랑을 기리는 날을 따로 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주장했다.

우리에게 익숙한 어버이날의 시초는 1907년 미국의 '안나 자비스'라는 인물에서 비롯됐는데, 그녀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 교회에서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흰)카네이션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이윽고 자신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어머니를 위한 '어머니의 날'을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날 제정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입법화를 위해 국회의원, 주지사, 시장, 신문사 등에 편지를 쓰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해 의회에 법안을 상정하였고, 1914년 미국의 제 28대 대통령인 토머스 우드로 윌슨이 5월 둘째 주 일요일을 '어머니의 날(Mother's Day)'로 선포하였습니다.

4. 우리나라 : 우리나라가 '어버이의 날(Parents Day)'을 기리는 것과 달리 서양에서는 '어머니의 날(Mother's Day)'과 '아버지의 날(Father's Day)'을 따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날은 6월 셋째 주 일요일로 정해져 있는데, 이 날은 워싱턴 주에 살던 '소노라 도드'가 처음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소노라 도드는 1909년 어머니의 날 설교 중에 문득 어머니가 사망한 후 6명의 아이들을 홀로 키워낸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리며 '아버지의 날'에 대한 생각을 떠올리게 되었고, 이듬해 처음으로 아버지의 날을 기념하기 시작했는데, 이후 아버지의 날이 공식적으로 제정된 것은 1972년의 일입니다.

5. 색깔별 카네이션 꽃말 : 돌아가신 어머니를 기리며 안나 자비스가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카네이션! 이제는 어버이날의 상징적인 꽃이 되었는데요. 붉은색, 흰색, 분홍색, 노란색 등 다양한 색깔의 카네이션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당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먼저 어버이날 가장 많이 선물하는 빨간색 카네이션의 꽃말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 '건강을 기원하는 사랑'이고요. 분홍색 카네이션은 '당신을 열렬히 사랑합니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흰색 카네이션은 '내 애정은 살아 있습니다', '아직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의미로, 주로 죽은 이를 추모할 때 사용된다고 해요. 보라색 카네이션은 '자유, 변덕' 마지막으로 노란색 카네이션은 '경멸, 거절, 실망'이라는 부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으니, 부모님께 선물할 때에는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1. 05. 04.

군 산 기 계 공 업 고 등 학



<p>마이스터고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p> <p> 54112 전북 군산시 군중길 28</p>	<p>올바른 인성과 역량을 겸비한 융·복합 기술인재 양성</p> <p>가 정 통 신 문</p> <p>교무실 : 730-5500 행정실 : 730-5630</p>	<p>제 2021 - 47 호</p> <p>통지대상 : 1,2,3학년 학생 및 학부모</p>
<p>제목 : 2021년 제40회 「스승의 날」 계기 교육 자료 안내</p>		

1. 제40회 스승의 날(매년 5월 15일) 법정 기념일 : 교권 존중과 스승 공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여 교원의 사기진작과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지정된 날.

2. 배경 : 대한민국의 기념일 중 하나로, 스승의 은혜에 보답을 하는 날. 5월 15일로 이 날은 세종대왕의 탄신일에서 따왔다. 이유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여 전국 온 백성에게 가르친 스승 같은 존재이기 때문. 참고로 음력(명나라 대통력) 1397년 4월 10일은 양력 율리우스력으로 1397년 5월 7일이고, 이를 그레고리력으로 환산한 날짜가 1397년 5월 15일이라서 그 날이 스승의 날로 된 것이다.

1963년 충남지역 청소년적십자 단원들이 '은사의 날'을 정하고 사은행사를 개최한 것이 시초로 알려져 있다. 1964년 청소년 적십자 중앙학생협의회(J.R.C.)는 5월 26일을 '스승의 날'로 지정하였으며, 1965년부터는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로 변경하여 각급학교 및 교직원체가 주관이 되어 행사를 실시하여왔다. 그 뒤 1973년 정부의 서정쇄신방침에 따라 사은행사를 규제하게 되어 '스승의 날'이 폐지되었으나, 1982년 스승을 공경하는 풍토조성을 위하여 다시 부활되었다.

3. 생각 엮보기 : [김영란 법]이 공표된 [2017년]부터는 스승의 날 행사도 아예 안 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국민권익위원회] 해석에 의하면, 선물은 커녕 10원짜리 [색종이]로 접은 [카네이션]을 주는 것도 무조건 불법이라고 한다. 직무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허용되는 금액 이하의 선물이어도, 예외 규정에 걸린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4. 교사상 :

∴ 경서를 가르치는 선생은 만나기 쉬워도, 사람을 인도하는 스승은 만나기 힘들다 - 사마광
∴ 사실을 암기만 하여 얻은 지식만으로는, 남의 스승이 될 자격은 없다 - 공자
"선생은 많으나 스승이 없다"는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선생'과 '스승'에는 조금은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된다. 즉 '선생'이나 '스승' 모두 가르치는 자라는 점에서 같지만, 그러나 '선생'은 단지 '직업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의 의미에 가깝고, '스승'은 삶의 본을 보여 제자들이 올바른 삶을 살도록 '이끄는 사람'이라는 의미에 더 가깝다. 고 볼 수 있다. 우리 사회는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차원에서 지식전달을 잘 하여 학생들을 상급학교로 진학시키는 '유능한 선생'을 원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상적인 차원에서 학생들을 인간으로 키우는 '참다운 스승'을 원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교사는 2가지 모두를 충족시키는 '참다운 스승'을 원합니다.

5. 은사 찾기 : 교육부에서는 스승찾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각 시, 도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은사 찾기'란에서, 선생님 이름을 입력하면 어느 학교에 근무하시는 지 알 수 있습니다.

단, 일부 선생님들은 개인 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6. 다른 나라 스승의 날 :

부탄은 5월 2일이 스승의 날이다. 원래 이날은 부탄 제 3대 국왕인 지그메 도르지 왕축 국왕의 생일이지만 특이하게도 생일이 아니라 스승의 날로 지정이 되어있다. 베트남은 11월 20일이 스승의 날이다.

대만에서는 공자탄신일인 9월 28일을 스승의 날로 지정하고 있으며, 중국은 양력 9월 10일을 스승의 날로 지정하고 있다. 특이하게도(?) 멕시코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스승의 날이 5월 15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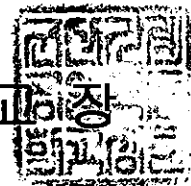
러시아의 경우 대한민국보다 한술 더 떠서 개학일을 스승의 날 비슷하게 기념하는데, 담임 선생님이 된 교사의 가슴에 꽃을 꽂아주며, 1년 동안의 교육을 잘 부탁드린다는 식의 단출한 개학기념 행사를 가진다.

7. 요약 : 스승의 은혜

스승의 은혜는 하늘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다
아아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아아아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2021. 05. 15.

군 산 기 계 공 업 고 등 학 교



<p>마이스터고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p> <p> 54112 전북 군산시 군중길 28</p>	<p>올바른 인성과 역량을 겸비한 융·복합 기술인재 양성</p> <p>가 정 통 신 문</p> <p>교무실 : 730-5500 행정실 : 730-5630</p>	<p>제 2021 - 48 호</p> <p>통지대상 : 1,2,3학년 학생 및 학부모</p>
<p>제목 : 2021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계기 교육 자료 안내</p>		

1. 5·18 민주화운동 :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광주(光州)와 전남(全南) 일원에서 신군부의 집권 음모를 규탄하고 민주주의의 실현을 요구하며 전개한 민중항쟁의 법정기념일.

2. 발단 : 5·18민주화운동이 발생한 다음 해인 1981년 5월 18일 피해자 집단, 학생, 재야운동 세력이 망월묘역에서 추모행사를 거행한 것이 발단이였다. 이전 정권에서는 이 추모행사가 재발하지 못하도록 탄압을 가했으나, 5월 계승운동의 일환으로 꾸준히 실행되어, 마침내 1997년 5월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3. 배경 : 1)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등장한 군사정권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의 사망과 함께 붕괴된다. 이를 틈타 전두환과 노태우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의 집권이 가시화되는데, 민중운동 및 반(反)군부 세력들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신군부의 집권으로 더욱 후퇴될 것을 우려하여 민주화운동을 시작하였다.

2) 시위가 확산되어 가자 신군부는 5월 14일부터 공수부대를 투입하여 집회와 시위를 진압할 계획을 현실화하였고, 17일 오후 7시에 공수부대 투입명령을 내렸다. 신군부는 5월 17일 밤 11시 40분에 '비상계엄이 18일 자정을 기해 전국으로 확대되었음'을 발표하는 한편, 전국에서 대학생과 재야인사들을 연행하기 시작했다.

3) 5월 16일에 개척된 집회를 해산하면서 약속대로 학생들은 18일 오전에 전남대 정문으로 집결하기 시작. 전남대에 주둔한 계엄군은 학생들의 해산을 중용하였고, 이 과정에서 첫 총돌이 발생하였다. 제7공수여단에 이어 추가로 파병된 제11공수여단은 시위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도 진압봉을 휘둘렀고, 무차별 연행하였는데, 이에 시민과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계엄군에 맞섰고, 도심은 전쟁터로 변해갔다. 제3공수여단이 추가 투입되는 등 계엄군은 계속 늘어났고 발포까지 이루어져 사상자가 급증하였다.

4) 마침내 5월 21일 시민군은 계엄군을 후퇴시킴으로써 27일까지 '민중자치'가 실현되었다. 이 기간 동안 시민군은 광주의 치안과 행정 업무를 담당했으며, 다수가 도청에서 최후를 맞이하였다. 계엄군이 철수한 광주는 5·18수습대책위원회에서 시민학생민주투쟁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해가면서 죽음으로 확보한 성과를 지속시키고자 했다.

5) 5·18광주민주화운동은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이 총정작전을 개시하여 전남도청을 다시 점령함으로써 종결되었다. 2001년 12월 18일을 기준으로 확인된 피해자는 사망 218명, 행방불명자 363명, 상이자 5,088명, 기타 1,520명으로 총 7,200여명에 이른다. 비록 5·18민주화운동은 비극적으로 종결되었으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명예회복, 보상, 기념사업을 쟁점으로 한 '5월운동'을 통해 계속되었다.

4. 발전 :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이 제정(1990년 8월 6일)되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및 기념사업이 이루어졌고,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이 제정(1995년 12월 19일)되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롯하여 가해자 다수에 대한 법적 처벌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현재에도 5·18민주화운동의 청산작업에서 발생한 오류와 미흡한 점들을 바로잡기 위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은 2000년대 들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과거사 청산작업'을 위한 선례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5. 결과 :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의 공식 명칭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는 흐름에 따라 몇 차례 바뀌었다. 전두환 정부에서는 '광주사태'로, 노태우 정부에서는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김영삼 정부에서는 '5·18광주민주화운동'으로, 그리고 김대중 정부에서 '5·18민주화운동'이 되었다.

사건의 명칭에서 '광주' 이름을 배제한 것은 5·18민주화운동이 지역을 넘어 보다 광범위한 시민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진 민주화운동이었음을 알리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시민 혹은 민주화운동 단체, 학계에서는 '광주민주화운동' 또는 '5·18민주화운동'이라는 명칭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현재 광주와 전남 일원에는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계승하기 위한 장소로 국립 5·18묘지, 5·18민주공원, 5·18자유공원을 비롯하여 100여개에 이르는 표지석, 안내표시판, 소공원이 조성되었으며, 5·18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2021. 05. 18.

군 산 기 계 공 업 고 등 학 교 장

